

The Pearl of Torah

Matthew 26:59–66; 26:64

with Leviticus 21:1–24:23 and Ezekiel 44:15–31

1. Core Passage

In Matthew 26:59–66, Yehoshua stands before the high priest and the council. They seek testimony against Him, but the witnesses are unstable. Finally, the high priest asks whether He is the Moshiach, the Son of Elohim. Yehoshua answers by pointing to Daniel 7 and Psalm 110: “From now on you shall see the Son of Adam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Power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마태복음 26:59–66 에서 여호수아께서는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서신다. 그들은 그분을 고발할 증언을 찾지만, 증인들의 말은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그분께 묻는다. “네가 메시아, 곧 엘로힘의 아들이냐?” 여호수아께서는 다니엘 7 장과 시편 110 편의 언어로 대답하신다.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2. Torah Layer — Leviticus 21:1–24:23

Leviticus 21–22 centers on the holiness of the priesthood. The kohen must guard purity, speech, body, offering, and sanctuary service. The high priest especially carries a higher standard because he represents Israel before YHWH.

레위기 21–22 장은 제사장의 거룩함을 중심으로 한다. 제사장은 정결, 말, 몸, 제물, 성소 봉사를 지켜야 한다. 특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여호와 앞에서 대표하기 때문에 더 높은 기준을 짊어진다.

Leviticus 24 moves from holy oil and holy bread to the sin of blasphemy. The one who profanes the Name is judged. This becomes important in Matthew 26, because Yehoshua is condemned under the accusation of blasphemy.

레위기 24 장은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떡에서 시작하여 신성모독의 죄로 이어진다.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마태복음 26 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호수아께서 “신성모독”이라는 고발 아래 정죄되시기 때문이다.

Key Torah Terms

Hebrew / Transliteration

כֹּהֵן — kohen

Meaning

priest / 제사장

כֹּהֵן גָּדוֹל — kohen gadol

high priest / 대제사장

קֹדֶשׁ — kodesh

holiness / 거룩

חִלּוּל הַשֵּׁם — chillul HaShem

profaning the Name / 이름을 더럽힘

קִדּוּשׁ הַשֵּׁם — kiddush HaShem

sanctifying the Name / 이름을 거룩하게 함

3. Prophetic Layer — Ezekiel 44:15–31

Ezekiel 44 describes the faithful sons of Zadok. While others went astray, they remained near to YHWH. They are permitted to draw near, minister, teach the difference between holy and common, and judge according to Torah.

This creates a sharp contrast with Matthew 26. The priestly court should have guarded holiness and truth, but instead it seeks false testimony. The office is holy, but the judgment becomes corrupted.

에스겔 44 장은 신실한 사독의 아들들을 묘사한다. 다른 자들이 빗나갔을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 가까이 머물렀다.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 섬기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며, 토라에 따라 재판할 권한을 받는다.

이것은 마태복음 26 장과 강한 대조를 이룬다. 제사장적 법정엔 거룩함과 진리를 지켜야 했지만, 오히려 거짓 증언을 찾는다. 직분은 거룩하지만, 그 판단은 타락한다.

4. Hidden Connection

The hidden pearl is this: the One judged as a blasphemer is actually the One who sanctifies the Name.

In Leviticus 24, the blasphemer misuses the Name and is judged. In Matthew 26, Yehoshua speaks truthfully of His identity and is judged as though He had misused the Name.

The high priest tears his garments, but Leviticus 21:10 says the high priest must not tear his garments. This moment reveals a deep reversal: the earthly high priest tears what he should guard, while Yehoshua remains silent and bears the true priestly burden.

숨겨진 진주는 이것이다. 신성모독자로 정죄 받으신 분이 실제로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레위기 24 장에서 신성모독자는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여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26 장에서 여호수아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진실하게 말씀하시지만, 마치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한 자처럼 심판을 받으신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는다. 그러나 레위기 21:10 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장면은 깊은 역전을 드러낸다. 땅의 대제사장은 지켜야 할 것을 찢고, 여호수아께서는 침묵 가운데 참된 제사장적 짐을 지신다.

5. Matthew 26:64 as the Center

“You shall see the Son of Adam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Power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This is not merely a defense. It is a throne declaration. Yehoshua does not argue like an accused criminal; He speaks as the hidden Judge.

The council thinks it is judging Him. But His words reveal that the true judgment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y are standing before the Son of Adam.

이것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다. 이것은 보좌 선언이다. 여호수아께서는 피고인처럼 논쟁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감추어진 심판자로 말씀하신다.

공회는 자신들이 그분을 심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참된 심판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들이 인자 앞에 서 있는 것이다.

6. Final Synthesis

Leviticus teaches that the priesthood must guard holiness. Ezekiel teaches that faithful priests must distinguish between holy and common. Matthew shows the tragedy of priestly authority failing to recognize the Holy One standing before it.

The Torah warns against profaning the Name. The Gospel shows the Name being sanctified through the suffering of the Righteous One.

The false court condemns Yehoshua as guilty, but the hidden Torah pattern reveals Him as the true Kohen, true Offering, and true Judge.

레위기는 제사장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에스겔은 신실한 제사장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마태복음은 제사장적 권위가 자기 앞에서 계신 거룩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을 보여준다.

토라는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한다. 복음서는 의로운 분의 고난을 통해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거짓 법정은 여호수아를 죄인으로 정죄하지만, 감추어진 토라의 구조는 그분이 참된 제사장, 참된 제물, 참된 심판자이심을 드러낸다.

7. Mussar

Do not confuse religious authority with spiritual discernment. A holy office can still make an unholy judgment.

Guard your speech, especially when judging another person. False testimony is not only a legal sin; it is a spiritual profaning of the Name.

The true servant of YHWH does not always defend himself loudly. Sometimes holiness is revealed through silence, restraint, and trust in the heavenly court.

종교적 권위를 영적 분별력과 혼동하지 말라. 거룩한 직분도 거룩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특히 말을 지키라. 거짓 증언은 단순한 법적 죄가 아니라, 그 이름을 더럽히는 영적 죄이다.

여호와와의 참된 증은 항상 큰 소리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 때로 거룩함은 침묵, 절제, 하늘 법정에 대한 신뢰를 통해 드러난다.

Before calling something “blasphemy,” ask whether you are resisting falsehood—or resisting truth because it threatens your position.

어떤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부르기 전에 물어보라.
내가 거짓을 대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위치를 위협하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가?

Pearl Summary

The holy priesthood was meant to guard the Name. But in Matthew 26, the priestly court condemns the One who perfectly sanctifies the Name. Yehoshua, accused as a blasphemer, is revealed as the Son of Adam, the heavenly Judge, the true Priest, and the faithful Witness.

거룩한 제사장직은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세워졌다. 그러나 마태복음 26 장에서 제사장적 법정은 그 이름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을 정죄한다. 신성모독자로 고발 받으신 여호수아께서는 인자, 하늘의 심판자, 참된 제사장, 신실한 증인으로 드러나신다.